

불교 기초교리 강좌

1강

절에서의 몸과 마음가짐

2014/ 09/ 14

오레곤주 포틀랜드 보광사

보광사

(www.bokwangсах.org)


(<http://cafe.daum.net/portlandbokwangsa>)








발심 수행장 by 원효 스님

- 오늘만 오늘만은
- 그 오늘이 다함이 없거늘
- 나쁜 짓은
- 날로 많아지며
- 내일은 내일에는
- 그 내일이 끝이 없거늘
- 좋은 일은
- 날로 적어지는구나

- 
- 올해는 올해만은
 - 그 올해가 다함이 없는데
 - 끝없이 번뇌만 일으키고
 - 내년은 내년에는
 - 그 내년이 끝이 없거늘
 - 행복한 깨달음으로 나아가질 않는구나

- 
-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
 - 금방 밤낮이 지나가고
 - 하루하루가 끊임없이 바뀌어
 - 빠르게 한 달 그믐이 지나가는구나
 - 한달 한달이 끊임없이 바뀌어
 - 훌연 일년이 되고
 - 한해 한해가 끊임없이 바뀌어
 - 잠깐사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구나

- 
- 몇생을 이 공부를 떠나
 - 헛되이 밤낮을 보냈으며
 - 이 헛된 몸을
 - 얼마나 더 살리려고
 - 평생 동안 이공부를 버려두느냐.

- 
- 이 몸은 반드시 그 끝이 있으리니
 - 뒷날 받을 몸은 어찌하려는가
 - 이 일을 안다면
 - 우리의 공부가 급하고 급하지 않겠느냐.

안심법문

"누구냐?"

"스님, 저 혜가입니다."

"들어오너라. 그런데 무슨 일이냐?"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편치 않은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해 주겠다."

혜가는 스승께 사실대로 말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케 해 주었다."

예절이란?

- 훌륭한 예절이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해 표현하는 기술이다.

By. 밀러, 미국의 작가(1874-1942)

- 예의(禮儀)는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경애하는 정신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공동체의 규정이나 관계이다.
- 범절(凡節)은 일상생활의 모든 일의 순서나 절차이다.
- 예절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그에 합당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불교 예절의 근본 정신

- 법화경 <상불경보살행>

나는 감히 당신들을 가벼이 여기지를
아니하노니, 당신들은 모두 마땅히 부
처님이 될것이오.

사찰 예절 동영상

- www.youtube.com/watch?v=mWXDmpjWETc&list=PL8n3nPGLKZkZG-LOrRnP3BhVq7KX1OCaF
- <http://www.youtube.com/watch?v=NoocQdYIXkM>
- <http://www.youtube.com/watch?v=AXCY7TtPBQ4>
- <http://www.youtube.com/watch?v=EHKgvzQ2oTU>
- <http://www.youtube.com/watch?v=R2JYH3vaxul>
- <http://www.youtube.com/watch?v=K8YU0xe2MQA>
- <http://www.youtube.com/watch?v=wKIfRBLnrbk>
- <http://www.youtube.com/watch?v=Ar4zctA1Bw8>

기본 예절

- 기본 자세

차수 - 도량에서 서 있거나 걸을때 함.

합장 - 방편과 진실이 둘이 아님을 나타냄 (천태지자대사)

호궤합장 장궤합장 - 수계의식에 사용
앉는 자세 - 결가부좌, 반가부좌 등등

절의 의미 by 성철스님

- 절을 한번 해도 남을 위해서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원을 세우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절을 하지 말고 절하는 것부터가 남을 위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절에서의 마음가짐

- 대지도론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가거나 올 때는 조용히 한 마음으로 발을 들고 발을 내리며 땅을 보고 걸어간다. 이것은 산란한 마음을 버리고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니, 이것을 물러나지 않은 보살의 모습이라 한다.

법당 예절

다른사람의 기도 정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신발을 가지런히 한다.

- 향올리는 법

다른사람이 이미 공양하였으러때는 자신이 준비한 것을 부처님 탁자에 올려 놓고 3배만 올린다.

- 
- 공양물을 올리거나 참배를 할시에 합장한 자세로 발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걸어야 한다.
 - 어간을 지나갈 때에는 합장한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지나간다.
 - 촛불을 끌때는 입으로 불지 않고 손으로 끄거나 도구를 사용한다.

잘못된 법당예절

- 어간에 앉음
- 자리를 미리 잡아놓음
- 좌복을 밟고 다님
- 사용한 좌복을 정리하지 않음
- 남이 올린 공양물(초나 향)을 빼고 자신이 준비한 것을 올림



법회 예절

- 법회 중간에 나가지 않는다.
- 의식에 참석하지 않고 설법 시간에 맞춰 오지 않는다.
- 설법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공양 예절

- 삼보와 국가, 부모, 스승, 시주의 은혜를 갚고 지옥. 아귀, 축생을 구제하기 위한 수행의 방편.
- 발우 공양

불자의 예절

- 스님을 대하는 예절

항상 반배를 함


예외 - 좌선중이거나 경행할때, 공양할 때, 양치질이나 목욕할때, 누워 있을 때.

- 재가불자 사이의 예절

법명이 있으면 법명을 부른다.

증일아함경

- 부처님께 예배하면 다섯가지 공덕이 있다.
- 첫째, 부처님의 상호를 봄으로써 존중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단정함이요,
- 둘째, 부처님을 뵈올 때 ‘나무불’이라고 세번 부르기 때문에 좋은 음성을 얻음 이요,
- 셋째, 꽃과 향과 등불을 갖추어 힘에 따라 공양하여 예배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음 이요

- 
- 넷째, 부처님을 뵈올 때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또 무릎을 땅에 대고 꿇어 앉아 합장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고귀한 곳에 태어남이요
 - 다섯째, 부처님을 염하는 공덕으로 저절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어리석은 범지 이야기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하여 어리석은 사람,
공연한 일로 바쁘다 허덕이는구나,
내 것이라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거늘 자식과 재물을
내 것이라 탐 하리요.

더울 때는 여기서 살고, 추울 때는 저기서 살겠다는 어리석
은 사람,
다가오는 변고는 알지 못하는 도다.

어리석은 이가 그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어리석은 이가 아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가 자신을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